

올바른 교육이

청소년 性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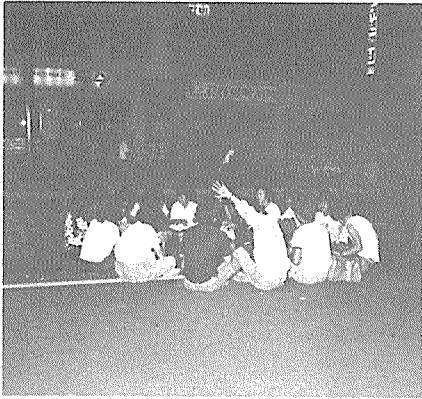
1. 교육의 필요성

음란비디오, 유흥업소, ○○싸롱의 살인 사건 등 우리 주변에 드물지않게 나도는 보도들은 오늘날 신문이나 TV의 뉴스를 보거나 듣는 사람이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보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낱말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받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 뉴스는 뉴스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호기심 많고 감정의 격동기(激動期)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거두절미(去頭截尾)한 이런 정보는 혼자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자극이 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과 관련된 화제는 아직은 크게 은폐되어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선진외국의 상태에 비하면 크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흘러나오는 정보의 바로 뒷면에는 감추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비밀들이 쉽게 보이게 되어 있고 그뿐아니라

알팍한 상술들이 아무런 무장도 없는 젊은이들을 마구 사로잡아 이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니 한심스럽다.

봉건적인 사회를 살아왔던 과거의 성은 엄격하게 비밀로 덮여져 왔었으나 남성들에게는 공공연하게 뒷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들은 웬만하면 손쉽게 알고 싶은 일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뒷거래에 의한 지식에는 많은 오류(誤謬)가 있었고 그들의 지식은 시정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지식의 오류는 대(代)를 이어 선배에서 후배로 또다시 그후배로 이어져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조차 한번도 없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는 그런 방면의 직업여성이 아니고는 성에관한 지식이란 거의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아는 것이 없는 상태로, 그러나 별 불편을 느끼지도 않으며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모르는 것은 미혼남성들의 성의 발달이라고 하는데 기혼남성의 성은 그나마 자신의 남편을 통하여 마치 코끼리몸에 일부를 만진 것으로 코끼리를



▲성(性)이란 서둘러 남보다 먼저 체험해야 할 일도 아니며 젊음에 힘입어 아무렇게나 내어던질 일도 아니다.

구와 똑같은 것이 여성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의심하지 않으므로 행위는 남성인 자신만 좋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게 되는데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단계의 남녀에게는 차이가 있고 여성이 성의 쾌감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뒤가 된다. 이때의 쾌감이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이성교제를 원하는 감정이 대단히 큰 것이어서 여성들은 자칫 이상태를 성욕인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젊은이들이 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지식은 여러가지이나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행위를 가지면 임신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즉 행위를 좋아서 했든, 강제로 당했든지 간에 시기가 맞으면 임신은 되는

것이다. 더구나 행위는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인 경우가 보통이고 또 피임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피한다는 일은 불가능 한 것이고 젊은이의 활기로 임신력(力)이 강하여 쉽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처지에서 그 행위로 쾌감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원치않은 임신만 하게 된다면 성은 좋은 것은 아니고 원망스러운 것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3. 성과 인생

성은 흔히 본능적이라고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 일, 대소변의 배설을 하는 일도 다 사람이 생활하는데서 제외시킬 수 없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바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들이다. 그것들은 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중에서 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고픔이 없을때)가장 큰 쾌감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다행히 여타 동물과는 달리 이성(理性)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성이 질서지키기를 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을 즐기고자 할때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즐겨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질서를 지키게 하는 방법이 된다.

성이란 서둘러 남보다 먼저 체험을 해야 할 일도 아니며 젊음에 힘입어 아무렇게나 내어던질 일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